2026. 3. 9.

금융 Weekly Insight

지정학 리스크 부각에 따른 조정 – Valuation 부담 완화를 기회로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3월 둘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는 지난 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파른 조정을 거친 가운데, 금융업종 또한 이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음.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7.8%, 8.6%, 4.6%의 조정을 시현.
-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금융주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Valuation 매력도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 특히, 증권주의 경우 투자자 저변 확대, 정책적 증시 부양 의지 지속 등 중기 성장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보유 관점에서의 접근이 타당.

금융 Overview

- 은행 – 단기 매크로 우려 불가피하지만…: 은행주는 7.8% 하락. 이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유가 및 환율 상승이 경기, 물가,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Stagflation 우려까지 제기되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이러한 영향 또한 단기 이슈에 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유효 판단. 이 경우, 은행들의 올해 실적 개선 및 주주환원 강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반면 은행들의 26E PBR은 0.8배까지 낮아진 만큼 투자 매력도가 제고되었다는 점에 초점 필요.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하순 은행들의 1Q 실적과 더불어 일부 은행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Update 발표가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판단.
- 증권 – 변동성에 민감한 구간: 증권 업종 주가는 8.6% 하락하며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유가 및 환율 상승 우려가 가파른 증시 조정으로 발현되며, 증권 업종 또한 주가 하락이 심화되었음. 다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3월초 일평균거래대금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거래대금 에너지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연초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하지만, 결국 이러한 거래대금 및 투자자 저변 증가는 증권업종에 중기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보유 관점에서의 업종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판단.
- 보험 – 방어주 성격은 보이고 있으나…: 보험 업종은 w-w 4.6% 하락하였으나, KOSPI 대비로는 아웃퍼폼. 이는 연초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주가 성과 및 증시 조정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방어주적 성격(내수 중심 사업 구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제한적, 금리 상승에 긍정적인 업황 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금융 업종 내 Valuation 부담은 가장 덜 해 주가 하락 국면에서 방어력은 뛰어나겠으나, 별개로 단기 주주환원정책의 유의미한 업그레이드, 펀더멘탈(보험손익)의 급반전 가능성 등 모멘텀이 요원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2) 국민은행 직원 1.2만명대로 감소 – AI전환에 인력감축 속도 상승** – KB국민은행의 임직원수가 '25년 처음으로 1.2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주사 출범 직전 '07년 1.8만명대비 30%가까이 감소한 것. 영업점 또한 '08년 말 1,137개에서 '25년 말 620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 – KB는 리테일뱅킹의 강점을 지닌 은행으로 은행 중 지점 및 직원이 가장 많았으나, 모바일 뱅킹 증가로 지점 내방 고객이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축 중. – 일각에서는 AI로의 전환이 확대될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언급.	**디지털/모바일 뱅킹의 확산이 가져온 변화:** 과거 리테일 뱅킹은 고객과의 접점이 중요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판관비용률이 높은 구조였으나, 뱅킹의 디지털화 및 모바일화는 반대의 효과를 창출. 즉, 은행들은 개인 수신 및 여신 취급에 있어 과거에 비해 인적 노동 요구가 대폭 감소. 실제로 대부분의 여수신 기능은 모바일 앱을 통해 대체. **영업 레버리지 효과 확대 – CIR의 하락 지속 + 은행 ROE의 추가 상승 전망:** 은행의 자산 성장에 수반되는 노동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확대를 의미. 즉, 과거와 달리 지점 직원수를 늘리지 않고도 개인 고객 대상 여수신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이는 은행 입장에서 CIR (cost-to-income ratio)의 감소 및 ROE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시사. **서구권 주요 은행들의 화두 또한 operational leverage 확대:**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음. 최근 미국 주요 은행들은 10%대 중반대의 ROTCE를, 유럽 주요 은행들은 심지어 20% 이상의 ROTE를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은 영업 레버리지의 확대.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추후 AI의 활용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3/3) 머니무브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금금리는 flat – 신규 NIS 1월 상승 –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1월 NIS는 1.46%로 17bp m-m 상승. 이는 지난 9월 이후 5개월만의 상승. 잔액기준 NIS 또한 1월 2.24%로 1bp m-m 상승. – 5대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1월 4.27%를 기록한 반면, 예금금리는 2.904%에서 2.766%로 13.8bp 하락. 2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05~2.90%수준. – 통상적으로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면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 하지만, 올해 들어 5대 은행 정기예금이 2.4조원 감소했으나,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및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대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예금금리 인상에 대한 니즈가 낮은 것으로 보도.	**은행 정기예금 자금의 일부 부동화:** 머니무브 현상은 은행의 자금 이탈 우려를 제기. 실제로 은행의 정기예금이 감소하였고, 일부 자금은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을 이탈할 수 있는 부동자금의 증가로도 해석 가능. 다만, 여전히 해당 정기예금 잔액 감소 부분은 2.4조원으로 같은 기간 증시 투자예탁금 증가분 20조원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 **더딘 대출 수요 회복 – 조달 금리 경쟁 완화로:** 은행 자금의 부동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 수요 회복이 더딘 만큼, 은행들 또한 금리를 희생하며 조달을 늘릴 유인이 적음. 즉, 통상적으로 머니무브는 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및 이에 따른 마진 축소를 수반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모습은 과거 2000년대 중반 뮤추얼 펀드의 붐이 은행 수신 이탈 및 NIM 급락을 야기했던 상황과 상이함. **우려대비 단기적 관점에서의 NIM에는 호재 –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 당초 머니무브에 따른 우려가 컸던 것에 비해 1Q NIM은 1월까지의 지표만을 놓고 볼 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의 예금이 지니는 매력도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은행들의 대응 전략 및 이의 차별화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3/3) 1월 기준 H지수 ELS 투자자 자율배상 97% 이상 동의 – 은행들은 H지수 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4년 4월부터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의 20~50%를 자율배상하고 있는 가운데, 1월 기준 자율배상안에 동의한 계좌 수가 97.2%를 기록. – 한편, 남은 2.8%의 투자자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으려 하지만, 은행의 과실 책임이 금감원의 자율배상안보다 높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금융위는 이달 내 정례회의를 거쳐 ELS 관련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도. 이에 은행들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1.4조원 수준으로 과징금이 축소되었으나, 동의율이 높은 만큼 0.5~0.7조원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3월 정례회의 통한 최종적 과징금 결정 기대 – 기대와 우려 사이:** '25년 하반기부터 H지수 ELS 관련 과징금은 은행들의 실적 및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특히, 은행들이 거액의 자율배상을 이미 집행한 만큼, 과징금은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과징금 경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실적 부담은 물론, 은행들의 자본비율에 대한 부담이 향후 성장 및 주주환원 기조에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과징금 발표 시 긍정적 모멘텀 기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모의 과징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은행주에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 기대. 이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3) 코인도 주식처럼 시장조성자 도입**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MM) 제도를 전격 도입 계획인 것으로 보도. 주식시장처럼 전문 기관투자자가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구상. - 금융위는 추후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조성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할 계획. 주식시장에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벤치마킹한다는 구상이며, 가상자산거래소가 전문 기관투자자에 시장조성 행위를 맡기는 방안이 거론. - 특히, 이는 가상자산을 새로운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점을 확인하는 지표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시장 양성화 의지 긍정적:**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제도화 및 양성화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특히, 시장조성자 도입을 통해 비정상적 가격 왜곡이 해소될 수 있을 경우, 이는 보다 양질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이정표가 관건:**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및 코인 ETF 등 시장에는 다양한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있어 뼈대를 마련하는 이정표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도입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
	(3/3) 은행 기보 협약 증가 통한 생산적 금융확대 - 시중은행들이 기술보증기금 (기보)과 손잡고 미래전략산업,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음. 특히 최근 시중은행들은 기보와 연달아 MOU를 체결하였는데, 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협약보증을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 - KB가 2월 26일 기보에 130억원을 출연, 4300억원 규모의 미래전략 산업 보증서 담보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도 '25년 말 기보에 50억원을 특별 출연, 2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대출을 공급하는 MOU를 체결. - 은행은 기술 심사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구조이지만 반대로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건전성 우려 완화 기대:**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 그러나 기보와의 협약 및 보증서 담보 대출 구조를 통해 은행들은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출연료의 40배 규모 보증. 즉 은행은 총 보증대출의 2.5%에 해당되는 비용을 분담:** 다만, 이와 같은 보증은 출연료를 필요로 하는 만큼, 공짜는 아님. 우리은행과 KB의 사례를 보면, 출연료의 40배에 해당되는 보증서가 발급되는 구조인데, 이를 역산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2천억원 대출 취급을 위해 2.5%의 출연료 부담을 지는 것.
	(3/5) 은행 대출 창구 판매 금리가 1%p 더 높아 - 같은 은행이라도 은행 창구에서 받는 대출 금리가 모바일 앱 신청보다 최대 1%p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도. 가령, KB의 5일 고시한 영업점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5.78%로 모바일 전용상품 금리 4.78%보다 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 - 이와 같은 금리차는 비용 구조에 기인. 즉, 비대면 상품은 오프라인 점포 상품이 고려해야하는 인건비와 영업점 운영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 따라서, 이러한 금리차는 대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금에도 적용되고 있음.	**모바일과 오프라인의 가격차이는 과거 다른 산업에도 존재, 새롭지 않은 사항:** 사실 은행 여수신 금리만 온/오프라인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가령, 자동차 보험의 경우 모바일 다이렉트 보험이 더 저렴하고, 주식 중개 수수료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간 격차가 존재. **원인은 비용 구조도 있지만 결국 가격 경쟁력:** 언론 보도와 같이 온라인 상품이 더 저렴한 일차적 원인은 비용.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보다 큰 원인으로 판단. 즉,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상품은 소비자가 물리적 이동 없이 손쉽고 빠른 시간 내에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한 여러 은행의 금융상품 비교 또한 용이해진 상황. 이러한 환경 하에서 온라인 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결국 소비자로부터 쉽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판단.
	(3/5) 다주택자 대출잔액 103조원 + 절반은 서울 경기에 집중 -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중도금 대출 포함) 잔액은 102.9조원으로 집계.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 - 지역별로는 서울 20조원, 경기 32조원, 총 5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 -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91.9조원으로 89.3%를 차지. - 대출 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이 95.7조원으로 93.0%를 차지하였고 만기일시상환은 7.2조원 (7.0%) 수준. -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일시 상환 구조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회수 방안을 검토, 매물 출회를 유동한다는 방침. 다만, 주담대 통계에는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이 모두 포함된 만큼, 규제 대상이 될 순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금융권의 관측.	**다주택자 대출 관련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 판단:** 은행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대출의 감소 압력 증가와 이 과정에서 건전성 악화 가능성. 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출은 원리금 분할 상환인 만큼, 급격한 대출 감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이에 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가 향후 관건:** 은행은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부동산 안정화 및 이를 통한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는 궁극적으로 은행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다만,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다른 재화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증권	**(3/3) 생산적 금융 ISA 배당 수익 비과세 검토…국내 주식 투자 한정 혜택 적용 가능성** - 정부가 연내 신규 출시를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ISA'에 이자/배당 수익 전액 비과세 혜택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 - 생산적 금융 ISA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 개설할 수 있는 청년형 ISA로 구성. - 다만 이러한 혜택은 국내주식 투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향이 유력.	**증시 활성화 의지 확인, 배당수익 관점 주식 투자 주목될 가능성:** 정부의 금번 ISA 관련 비과세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1)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증시 부양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2) 단기 자본 차익이 아닌, 이자/배당 등 중기 현금흐름 관점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중장기 투자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흐름은 1) 자산 배분 차원에서 증권사로의 흐름을 가속화한다는 점(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 및, 2)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증권업종에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3/4)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 무기한 중단…개미들 '빚투 물타기' 줄줄이 막히나 -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를 중단하고 있음. - 한국투자증권은 4일 오전부터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신규 거래를 별도 공지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규 신용 공급 중단에 따라 증시 조정에 따른 반대매매 등 증가 가능성 또한 커졌다고 분석.	**증권사 자본 확보 필요성은 점증:** 금번 대형증권사들의 신용 중단 조치는 시장 변동성보다는 개별 회사별 자기자본에 연동되는 신용공여잔액 한도 도달에 따른 것으로 추정. 결국 증시 저변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증권사들의 자본 확충 니즈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주주환원확대 요구와 일부 배치된다는 점에서 회사별 전략 방향성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판단.
보험	**(3/2) 금감원, '보험 회계 가정' 들여다본다…상반기 정기 감리** - 올해 초 계리 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 -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정기 감리에 착수해 계리 가정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 - 해당 과정에서는 계리 가정 산출/체계, 현금 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	**계리 가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상반기 중 지속될 전망:** 금감원의 계리 가정 산출 체계 감리와 더불어, 특정 담보에 대한 손해율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상반기 중 개별 보험사에 적용될 예정. 과거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 도입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대규모 CSM 조정 및 마진 조정 등을 경험했던 만큼, 실제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이는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3-09 (월)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미국 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독일 1월 산업생산
		일본 1월 경상수지
		일본 1월 경기동향지수(예비치)
		일본 2월 은행대출
		일본 2월 경기현황지수
		중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26-03-10 (화)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미국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1월 가계지출
		일본 4분기 GDP(수정치)
2026-03-11 (수)	2월 금융시장 동향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일본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일본 2월 공작기계수주(예비치)
		OPEC 월간 보고서
2026-03-12 (목)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 1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KDI 경제동향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1분기 대형제조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
2026-03-13 (금)	1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미국 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국 1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미국 1월 내구재주문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1월 산업생산
		독일 1월 경상수지
		영국 1월 GDP 성장률
		영국 1월 산업생산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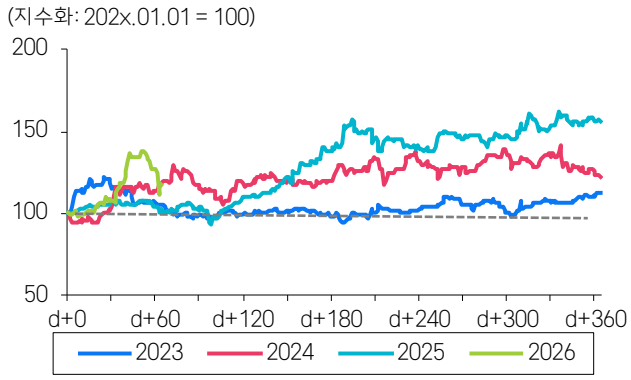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465.4	5,584.9						(10.6%)	4.0%	116.8%	32.5%
	KRX은행	198.4	1,526.7						(7.8%)	1.4%	78.9%	17.1%
	KRX증권	94.9	2,654.4						(8.6%)	14.9%	235.1%	73.5%
	KRX보험	97.4	3,277.6						(4.6%)	9.3%	77.9%	22.4%
	결제 지수**	1.548	n/a						(5.9%)	(11.1%)	66.7%	17.9%
은행	KB금융	55.0	147,400	57.9	0.9	11.1	8.1	11.9	(7.3%)	3.7%	87.5%	18.2%
	신한지주	43.6	91,800	54.4	0.8	10.3	7.8	14.9	(5.3%)	1.7%	98.1%	19.4%
	하나금융지주	30.7	110,300	50.1	0.7	10.5	6.9	11.7	(9.4%)	(2.0%)	85.4%	17.2%
	우리금융지주	24.3	33,050	42.2	0.7	10.3	7.2	9.3	(8.2%)	3.1%	103.8%	18.0%
	기업은행	18.9	23,650	35.5	0.6	8.9	7.1	5.3	(8.2%)	3.5%	52.7%	12.9%
	BNK금융지주	5.7	18,420	45.3	0.5	8.8	6.0	18.3	(7.6%)	3.4%	75.4%	16.1%
	JB금융지주	5.5	29,400	42.4	0.5	9.1	5.8	11.7	(7.4%)	4.8%	70.2%	14.6%
	iM금융지주	2.7	17,050	49.3	0.9	13.4	7.2	8.7	(7.3%)	2.0%	89.4%	9.6%
	카카오뱅크	11.5	24,100	50.0	1.6	7.8	21.0	14.0	(11.2%)	(3.6%)	3.7%	11.6%
증권	미래에셋증권	38.1	67,100	58.0	1.3	11.2	11.8	14.0	(6.8%)	31.1%	635.7%	187.4%
	NH투자증권	11.5	32,200	49.3	0.9	10.9	8.5	2.0	(9.3%)	18.8%	115.5%	52.6%
	한국금융지주	12.8	230,000	20.2	0.9	13.6	7.1	-22.4	(11.0%)	8.0%	198.3%	42.2%
	키움증권	11.8	435,500	28.3	1.1	19.1	6.7	14.4	(6.5%)	(1.9%)	265.7%	50.4%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0.0	114,400	49.9	1.6	24.4	7.0	8.8	(10.0%)	(5.7%)	(10.1%)	1.1%
	삼성화재	22.8	496,500	41.1	1.2	12.4	9.5	12.8	(6.3%)	(3.8%)	28.6%	(0.1%)
	삼성생명	42.0	210,000	45.0	0.6	5.3	12.1	4.1	(8.7%)	6.3%	145.9%	33.2%
	DB손해보험	13.1	188,400	28.7	1.0	19.2	5.2	15.6	2.9%	23.3%	101.7%	43.7%
	한화생명	4.3	4,950	16.4	0.2	5.6	4.1	37.8	(0.1%)	29.1%	90.8%	52.1%
	현대해상	2.8	30,850	11.7	0.5	17.5	2.9	18.3	(10.2%)	2.2%	33.8%	0.2%
결제	카카오페이	8.3	61,600	n/a	n/a	5.6	82.9	57.5	(7.9%)	(10.2%)	87.8%	25.5%
	NHN KCP	0.8	20,250	n/a	n/a	17.2	14.5	16.1	(5.4%)	(14.9%)	138.8%	35.8%
	KG이니시스	0.3	10,600	n/a	n/a	7.5	4.8	5.5	(8.0%)	(10.0%)	21.1%	3.7%
	KG모빌리언스	0.2	5,000	n/a	n/a	10.7	4.6	8.1	(6.0%)	(9.4%)	13.4%	6.4%
	나이스정보통신	0.3	25,250	n/a	n/a	9.2	5.6	29.7	(4.7%)	0.8%	46.4%	(0.4%)

참고: 3/6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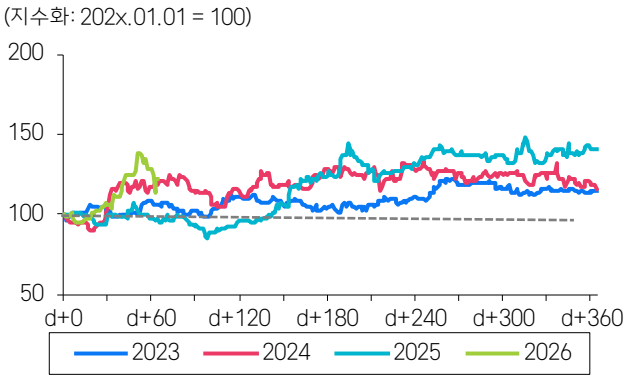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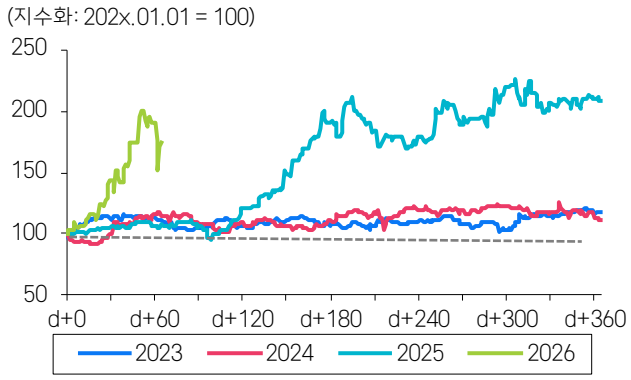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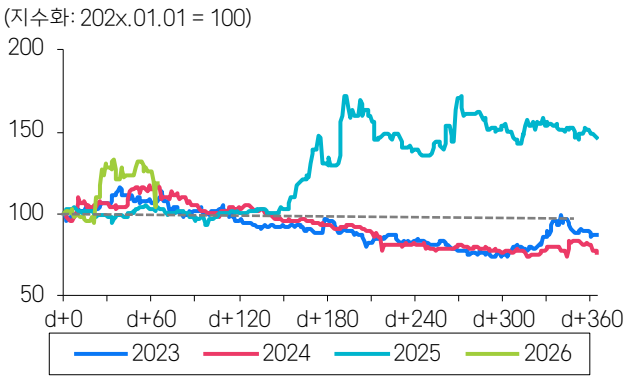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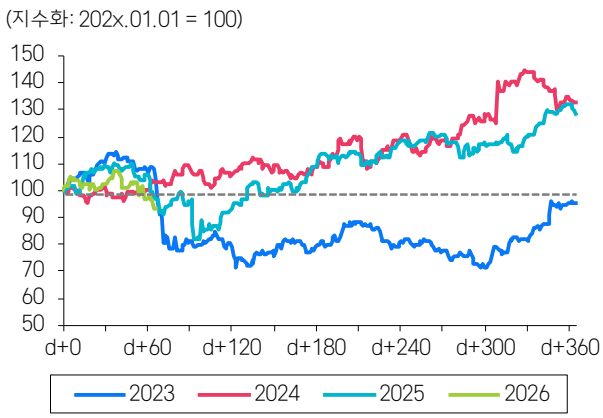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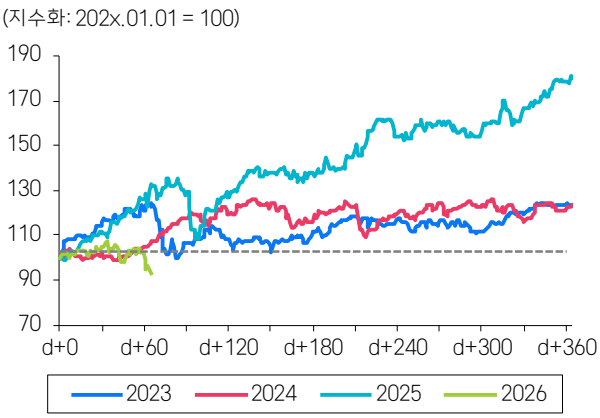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780.7	84.5	2.1	16.4	13.4	7.6	(3.6)	(10.2)	19.5	(10.2)
		Bank of America	349.1	98.5	1.2	11.3	11.2	12.3	(2.4)	(14.0)	17.5	(11.6)
		Citigroup	186.4	119.6	0.9	9.2	10.4	46.8	(3.3)	(13.2)	51.2	(8.7)
		Wells Fargo	248.1	98.3	1.4	12.7	11.6	11.2	(1.3)	(14.4)	13.2	(13.7)
		PNC Financial	83.1	67.0	1.4	12.8	11.4	9.3	(2.9)	(15.0)	14.7	(1.3)
	유럽	Banco Santander	162.1	63.4	1.3	13.4	9.3	7.4	(11.2)	(11.5)	54.0	(4.8)
		Unicredit	114.9	84.3	1.5	16.8	8.9	5.8	(8.7)	(15.9)	23.9	(6.8)
		BBVA	120.8	84.1	1.7	19.6	9.0	16.6	(7.0)	(11.0)	39.6	(8.4)
		ING Group	76.3	82.6	1.3	12.8	9.9	5.3	(7.9)	(12.0)	21.1	(4.9)
		Lloyds	74.8	82.3	1.3	13.8	10.2	42.0	(6.9)	(10.6)	34.5	(2.9)
		Barclays	74.2	64.2	0.8	10.8	9.1	21.9	(10.8)	(15.6)	35.3	(15.1)
	일본	Mitsubishi UFJ FG	194.3	61.1	1.4	10.7	13.3	21.7	(12.6)	(12.3)	34.9	4.0
		Sumitomo Mitsui FG	123.5	54.3	1.2	10.6	12.4	36.7	(14.8)	(14.6)	36.1	1.4
		Mizuho FG	95.7	67.7	1.3	11.1	12.7	37.3	(14.8)	(19.4)	45.8	6.9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49.4	30.3*	0.6	9.3	6.4	1.9	(0.6)	(1.7)	14.3	1.9
		China Construction Bank	270.9	29.9*	0.6	10.0	6.2	(1.9)	(1.0)	(2.1)	17.0	2.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31.1	30.8*	0.7	10.0	6.7	4.3	(1.1)	(4.7)	11.0	(9.2)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67.7	N/A	1.4	6.0	22.1	(27.2)	(1.2)	(1.9)	0.7	(0.9)
		AIG	42.2	73.0	1.0	10.1	10.4	흑전	(2.2)	2.6	(3.4)	(8.0)
		Travelers Insurance	66.2	77.4	1.8	17.7	11.2	(0.3)	(0.8)	1.6	18.9	5.6
	유럽	Allianz	152.3	78.5	2.0	18.2	11.4	10.0	(9.1)	(10.3)	1.3	(11.0)
		AXA	91.2	50.3*	1.7	17.8	8.6	25.8	(8.6)	(4.2)	(2.2)	(7.5)
		Generalli	59.1	56.7*	1.6	13.7	12.0	13.7	(8.4)	(7.6)	3.2	(7.3)
	일본	Tokio Marine	71.4	41.2*	2.2	20.1	11.1	(2.8)	(10.4)	(4.6)	9.4	0.5
		Daiichi Life Insurance	33.8	44.5*	1.4	12.2	12.6	(0.8)	(10.3)	(0.7)	30.4	10.9
	중국	Ping An Insurance	158.6	34.8*	1.2	14.0	7.9	13.6	(4.9)	(11.4)	33.3	(0.8)
		China Life Insurance	156.4	15.2*	1.3	28.8	4.9	55.5	(8.8)	(17.8)	80.7	5.2
		PICC P&C Insurance	44.9	33.9*	1.2	16.5	7.7	42.0	(2.5)	(3.9)	20.5	(3.5)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53.2	98.8	2.2	16.2	14.1	13.6	(4.4)	(11.6)	46.8	(6.6)
		Morgan Stanley	254.5	72.1	2.3	16.9	14.2	10.4	(3.7)	(10.9)	34.4	(9.7)
		Charles Schwab	171.7	97.6	3.4	21.8	16.7	22.8	0.0	(9.4)	27.6	(4.7)
		Robinhood	69.5	37.3	6.3	21.6	31.9	17.8	1.6	(6.9)	73.5	(31.8)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06.7	82.6	6.0	35.0	17.1	14.4	(2.6)	(16.2)	10.2	(18.6)
결제	미국	VISA	619.5	21.7*	15.0	60.5	25.1	24.0	(0.9)	(4.3)	(8.1)	(9.5)
		MasterCard	465.9	17.6*	42.9	192.8	27.1	16.8	1.0	(4.8)	(4.5)	(8.5)
		PayPal	43.2	5.6*	2.0	23.1	9.0	(4.0)	1.6	16.2	(33.4)	(19.5)
	유럽	Adyen	33.8	0*	4.5	21.3	23.9	15.6	(6.5)	(21.6)	(41.6)	(32.3)
핀테크	미국	Block	39.7	0*	1.6	9.7	21.3	48.6	4.1	18.5	10.6	1.9
		Upstart	2.7	0*	3.0	20.3	26.8	130.3	2.0	(27.4)	(48.3)	(36.5)
		Affirm	17.2	0*	4.4	10.3	47.3	628.1	10.0	(9.3)	(0.5)	(30.5)
	중국	LuFax	2.4	N/A	N/A	2.4	N/A	흑전	0.0	0.0	0.0	0.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3/6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